

자이데나, 출시 1달 시장진입 성공?

동아제약 성공적 진입 주장 ... 외국 제약기업은 임팩트 별로 반박

동아제약의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의 시장진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자이데나는 2005년 12월22일 시중에 처음 선보여 2006년 1월25일 현재 판매된 지 한달이 경과했다.

동아제약은 국산 발기부전약으로 자이데나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자이데나는 출시 이후 도매상 등을 통해 하루 평균 1억원 가량 판매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인의 체질에 맞을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제품에 비해 40% 가량 저렴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자이데나는 100mg와 200mg 2가지 용량으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100mg 제품은 7000원, 출시예정인 200mg은 1만2000원이다.

Pfizer의 비아그라, Eli Lilly의 시알리스, Bayer의 레비트라 등 기존 발기부전 치료제는 1회 기준으로 1만3000-1만6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동아제약의 분위기는 자이데나 시판으로 한껏 고무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은 대표제품인 박카스D가 한동안 광동제약의 비타500에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다소 침체돼 있었으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 자이데나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렸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제약의 자평과는 달리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좋지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자이데나가 토종 발기부전 치료제라는 구호 아래 호의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출시됐지만 시장에 주는 충격은 예상보다 미미하다는 것이다.

외국계 제약기업의 한 관계자는 “자이데나는 국산 기술로 개발된 신약이라는 명성에 비해 기존시장에 던지는 임팩트가 떨어지는 것 같다”며 “새로운 약의 등장으로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자체의 덩치가 커질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발기부전 환자는 대략 200만명으로 추산되며 시장규모는 2005년 650억원에서 2006년에는 800억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인 IMS코리아에 따르면, 2005년 3분기 비아그라가 56.8%의 시장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시알리스(32.3%)와 레비트라(10.9%)가 뒤를 따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1/26>